

「킹제임스 성경」을 제정한 ‘제임스 왕’의 이름은 제임스 찰스 스튜어트(혹은 스테워드)이다. 그는 1566년 6월 19일 에든버러 성에서 태어났으며 스코틀랜드의 여왕이던 자기의 어머니 메리의 분부로 자기 의지에 반하여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는 1567년 7월 24일 만 한 살이 조금 넘었을 때에 자기 어머니 메리가 권좌에서 축출되었으므로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었다. 그의 아버지 헨리 로드 다넬리는 1567년 2월에 살해당했는데 사람들은 그의 아내 메리가 그의 죽음에 관여한 것으로 여겼다.

아직 아기였을 때 제임스는 로마 교회로부터 구출되어 보수적인 장로교회의 보호 아래 양육되었는데 이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를 전복시키고 로마 카톨릭 통치를 재건하려는 음모와 반음모를 겪게 되었으며 1600년과 1605년 사이에만 연달아서 무려 네 번이나 이런 음모를 겪게 되었다. 이처럼 이 젊은 왕의 주변에는 늘 폭력이 존재했다. 단 십구 세의 나이에 제임스 왕은 마르의 얼(Earl of Mar)을 살해하고 로마 카톨릭 체제하에서 왕권을 조정하기 위한 음모로 인해 여러 친구가 죽는 것을 직접 보았다. 젊은 왕은 이런 음모들이 평생토록 자기를 따라 다닐 것을 알았고 그래서 길을 걷다가 다음 골목에 들어가거나 혹은 경호를 받지 않고 침실에서 잠을 자다가

24) 본 부록은 사무엘 김 박사의 「Understandable History of the Bible」 제2판의 10장이며 대구의 박석홍 형제가 번역했다.

순식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음을 절대 잊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그는 폭력과 전쟁을 싫어한 것 같다.

이 선한 왕은 여러 가지 미덕으로 칭송을 받았다. 그의 생각은 예리하고 영리했다. 오펔(Olga S. Opfell)은 이렇게 말한다.

그의 세련된 덕망 중에는 그가 배우는 데 모범을 보인 사람이며 그리스어와 라틴어 그리고 다른 언어를 많이 배웠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일등급이었다. 일곱 살 때 벌써 그는 성경 한 장을 라틴어에서 프랑스어로 족석에서 읽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프랑스어에서 영어로 읽을 수 있었는데 사실 소수의 사람만 그의 번역에 토를 달 수 있었다. 때가 되자 그는 유럽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통치자로 알려지게 되었다. 제임스의 학구열은 매우 지대해서 그는 '만일 내가 죄수가 되었다면 옥스퍼드 대학의 거대한 도서관에 감금되길 바랐을 것이다'라고 재치 있게 말하곤 했다.

제임스 왕은 1589년 8월20일 덴마크의 프레드릭 2세의 둘째 딸인 앤과 결혼했으며 이들은 다음과 같이 여덟 자녀를 낳았다.

첫째, 헨리는 1594년 2월 19일에 태어났으며 1612년 11월 6일 십팔 세의 나이에 죽었다.

둘째, 엘리자베스는 1596년 8월19일에 태어났으며 1662년 2월 13일 육십오 세의 나이에 죽었다.

셋째, 마가렛은 1598년 12월에 태어났으며 1600년 12월 두 살의 나이에 죽었다.

넷째, 찰스는 1600년 11월 19일 태어났고 헨리가 일찍 죽음으로 인해 자기 부친의 뒤를 이어 1625년에 찰스 1세가 되었으며 1649년 사십구 세의 나이에 살해되었다.

다섯째, 로버트는 1602년 1월18일에 태어나서 1602년 5월 27일 4개월 만에 죽었다.

여섯째 아이는 1603년 5월에 사산되었다.

일곱째, 메이는 1605년 4월 8일에 태어나서 1607년 9월 16일 두 살에 죽었다.

여덟째, 소피아는 1606년 6월 22일에 태어나 이듬해 한 살의 나

이로 죽었다.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는 1603년 3월 24일 잉글랜드의 왕좌를 승계하면서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가 되었고 이로써 두 나라를 통일시키며 단일 군주 체제를 구축했다. 그는 통치를 잘했으며 자기 백성에게 대단한 사랑을 받다가 그로부터 정확히 22년 뒤인 1625년 3월 27일에 죽었다.

제임스 왕은 평생토록 몇 가지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고생했다. 그는 다리가 매우 약해 걸을 때 종종 부축을 받아야만 했다. 그의 손은 사용하는 데 제약을 받아서 비서나 시종이 그를 대신해서 글을 쓰곤 했다. 그는 또한 통풍, 관절염 그리고 ‘포르피라’(Porphyra) 같은 병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포르피라’는 사람을 허약하게 하는 질병으로 보통 ‘왕가의 병’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런 만성적인 질병으로 인해 그는 약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주 누워 있어야 했다. 그러므로 제임스 왕의 침실은 왕을 수발드는 신하들로 둘러싸인 ‘집무실’이 되었다. 왕은 쉽게 잠들지 못했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는 신하들을 두어 자기를 경호하게 하면서 그들과 한 방에서 함께 잤으며 잠이 들 때까지 자기를 위해 글을 읽게 하기도 했다. 어떤 때 그는 너무 아파서 헛소리를 하기도 했으며 혀가 너무 길어서 침을 흘리기도 했고 마실 때 훌쩍 훌쩍 소리를 내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이 위대한 왕은 육신적으로 혐오감을 일으켰고 자기 자신도 그것을 잘 알았다. 외관상으로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이 삶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 방법은 마음도 육신처럼 더럽게 해서 다른 사람의 미움거리가 되고 그래서 육신적인 것으로 거부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씩씩이 등으로 거부를 당하는 것이다. 둘째 방법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친절을 보임으로써 자기 육체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제임스 왕은 후자를 택했다.

제임스 왕의 친절

제임스 왕의 친절과 굉장한 지식에 대해서는 방대한 증거가 있다. 라틴어와 그리스어 그리고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한다는 것과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교육받았다는 것 외에도 왕은 다른 사람을 친절히 대우한 것으로 인해 칭송을 받았다. 굿맨 감독(Bishop Godfrey Goodman)은 제임스 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나는 여러분에게 제임스 왕의 몸가짐과 기질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그렇게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애정을 보이는 사람을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정직하고 잔인함과 교만을 모르는 분이었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많은 좋은 일을 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1602년에 워튼 경(Sir Henry Wotton)은 제임스 왕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그에게는 겉손에 가까운 어떤 천성적인 선함이 있었다. 그의 좋은 성품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순결한 삶이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도 아무 흠 없이 보존되고 있다. 이 점에서 그는 수없이 많은 사생아를 출산시켜 왕국을 어지럽게 했던 그의 선조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다.

1603년에 윌브라함 경(Sir Roger Wilbraham)은 ‘왕은 아주 예리한 기치와 창의적 재주를 지녔다. 그분은 내가 아는 어떤 사람보다도 좋은 성품과 즐거운 마음을 가졌으며 참으로 명예스런 것만을 추구했다.’ 고 말했다.

인더윅(F. A. Inderwick)은 ‘제임스 왕은 학문과 영성과 선한 성품과 너그러움으로 인해 좋은 평판을 가졌다.’ 고 보고한다.

챔버스(Robert Chambers)는 ‘제임스 왕은 성품이 선한 군주였다.’ 고 확증하며 또 ‘제임스 왕은 자기 백성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 고 말하고 또 다시 ‘제임스 왕은 결코 겁쟁이가 아니었고 살면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팔목할 만한 용기를 보여 주었다.’ 고 언

급했다.

왈폴(Hugh Wlapole)은 ‘그는 크고 튀어나온 푸른 눈을 소유했으며 사람들과 말할 때 모든 비밀을 읽어 내는 것처럼 그 눈으로 상대방을 주시했다.’고 말다.

코스튼(Stephen A. Coston)은 1823년에 아이킨(Lucy Aikin)이 제임스를 칭송한 것에 대해 공감하는데 아이킨은 이렇게 말했다.

그의 편애 성향에 대해 말하건대 그가 애정의 대상에게 거의 맹목적인 충성을 보인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매우 아량이 넓고 선한 성품의 소유자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의 선한 성품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에게 흘러 넘쳤고 그래서 끈질기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간청을 그가 거부하는 것은 거의 도덕적으로 불가능했다. 동일한 근원 즉 선한 성품에서 나온 너그러움으로 인해 그는 계속해서 돈을 필요로 했다.

제임스 왕의 뛰어난 점

제임스 왕은 평생토록 육신적인 질병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제약을 받았지만 위대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그의 인격의 위대함으로 인해 사람들은 저절로 그를 존경하고 칭송하였으며 그래서 그는 존경과 복종을 얻어 내기 위해 자기 백성을 억압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스스로 도덕적인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자기 친구나 가족에게 도덕적인 삶을 권장한 도덕의 대들보였다. 비록 연약한 것이 있었지만 그는 사자(獅子)의 마음과 혼을 가졌다.

인더워은 다시 한 번 제임스의 좋은 성품을 우리에게 전해 준다.

그의 성품에 대해 말하건대 나는 그가 인간적으로 선한 사람이며 또 훌륭한 도덕적 성품을 지닌 사람이라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다. 아마도 그는 장로교가 정교사로부터 엄격하게 주의 깊은 훈련을 받아서 이런 것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왕은 ‘사내

중의 사내'로 남성미를 증진시켰고 여성적인 것을 싫어했다. 제임스 왕의 아들 헨리는 갑작스레 죽기 전까지 제임스 왕의 뒤를 이어 왕위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제임스 왕은 그에게 군주가 순결해야 하고 남자답고 도덕적이어야 하다고 단호히 교육했다. 그러므로 그는 헨리가 군주로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합당히 행해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 책을 저술했다. 이 책의 제목은 「바실리콘 도란」(*Basilicon Doran*)인데 그 뜻은 '왕으로서의 선물'이다. 이 같은 제목은 제임스 왕이 아들에게 주는 선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헨리가 어떻게 자기 신하들에게 '왕으로서의 선물'이 될 것인가를 묘사한 것이다. 제임스 왕은 헨리에게 이렇게 명한다.

특별히 의복이나 향수 등과 같은 것에서 여성적인 것을 피하라. 그리고 어리석게 변장하거나 머리카락 손톱을 길게 하지 말라. 이것은 단지 본성을 거스르는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

또 다른 글에서 그는 자기 아들에게 '예쁘장하게 차리고 여자처럼 행동하는 자를 조심하라.'고 권고했다.

또 그는 번영의 약점에 대해서도 훈계했다.

우리의 평화는 빵의 부요함을 주고 있다. 그런데 평화와 부요함은 우리로 하여금 빈약한 기쁨과 부드럽고 섬세함 가운데서 텅굴게 하는 게으름을 가져다주며 이것이야말로 모든 위대한 군주를 멸망으로 이끄는 주요 요인이다.

제임스 왕은 남자를 여성화시키거나 여인들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싫어했다. 그래서 그는 담배 피우는 천한 습관을 매우 싫어했다. 그는 담배 피우는 습관을 대적하기 위해 「담배를 강력히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논문을 썼으며 이를 통해 선견지명의 탁월한 특성을 드러내었다. 그는 담배 피우는 습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눈을 아프게 하고 코에 불쾌하며 뇌에 해롭고 검은 고약한 연기가 폐에 위험하므로 바닥 없는 구덩이(무저갱)에서 올라오는 무시무시한 지옥의 연기와 흡사하다. 원숭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본받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었다.

여기에서 위대한 제임스 왕은 그가 살던 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 나아갔다. 그는 자기 동료들이 무지하던 때에 이미 흡연이 건강에 해로움을 깊이 인식했으며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수백 년이나 앞서갔다. 그러나 여성들을 인격체가 아니라 소유물로 여기던 때에 제임스 왕이 '담배를 강력하게 반대한 것'은 여성에 대해 그가 깊은 관심과 호감을 가졌음을 잘 보여 준다. 다시 흡연에 대해 제임스 왕은 이렇게 말한다.

남편은 섬세하고 건강하고 밝은 안색을 한 아내를 극한 지경으로 몰아넣어 흡연으로 인해 그녀의 달콤한 호흡을 부패하게 만들거나 혹은 평생토록 고약한 냄새로 인한 고통 속에 살게 해서는 안 되며 이런 습관을 반대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된다.

제임스 왕은 과연 영국 국민이 이런 나쁜 습관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빠지게 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 챔버스(Robert Chambers)는 제임스 왕의 느낌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담배를 강력히 반대한다」의 서문에서 제임스 왕은 평화 시대에 부가 증가함으로써 이런 악습이 생겼다고 말하며 그래서 이런 시대에 남자들이 여성화되고 부당한 방종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임스 왕이 남자를 여성화시키는 것에 대해 극렬히 반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옷을 입거나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남자가 남자답고 여성화되지 않아야만 국가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느꼈다. 사실 '동성연애자'들과 그들의 정도를 벗어난 행위들은 특별한 조치를 통해서만 고쳐질 수 있었다! 그는 「바실리콘 도란」에서 자기의 후계자에게 이렇게 충고했다.

네가 반드시 양심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무서운 죄들이 있는데 마술, 의도적인 살인, 근친상관, 동성연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옛날 영국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왕들이 항상 최고의 도덕적 자질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들과의 애정 유희는 너무나 일반적이었다. 실제로 그들은 도덕적으로 자유분방했으나 자기 아내에게는 정절을 요구했다. 그러나 제임스 왕은 그런 고위직을 차지했던 대부분의 사람과는 다른 부류였으며 그래서 자기의 후계자가 다가올 세대를 위해 높은 도덕적 모범을 보이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바실리콘 도란」에서 자기의 후계자에게 이렇게 권면했다.

네 몸이 속한 아내에게 네 몸을 줄 때에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더럽히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네 몸이 더럽혀졌다면 어찌 처녀를 취해 아내로 맞는 일을 바랄 수 있겠느냐? 어찌 한 쪽은 깨끗해야 하고 다른 한 쪽은 더럽혀져야 하느냐? 추측컨대 세상 사람들은 음행을 단지 가벼운 죄로 생각하나 내가 첫째 책에서 양심에 대해 말한 것을 잘 기억하여라. 그리고 모든 죄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을 헛된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심판자이시며 율법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음을 생각하여라.

제임스 왕은 계속해서 충고했다.

모든 유혹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전인 네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제임스 왕은 부도덕을 왕권의 특권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네 왕위가 네 잘못을 감소시켜 주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욱이 그것이 죄를 지어도 되는 면허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네 잘못은 네 왕위의 위엄에 따라 더 무겁게 될 것이다.

제임스 왕은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순수하고 정직해야 할 책임을 지닌 것으로 생각했다.

너는 의회와 그 동반자들이 경건함과 모든 정직의 덕목에서 백성에게 모범이 되게 해야 한다. 특히 주의하여 가장 온화한 사람을 택하도록 하라.

거룩함은 크리스천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성품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아는 데서 나온다.

백성을 좋은 법으로 속박해서 잘 다스리는 것만으로 좋은 왕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다 자신의 인격과 의회와 그 동반자들의 인격 속에 들어 있는 덕스런 삶을 결합하고 또 자기 신하들이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게 만듦으로써 좋은 왕이 된다.

네 삶과 인격 속에서 그리고 정부와 거기 속한 자들의 경건함과 미덕 속에서 이런 본을 보이도록 하라. 네 마음을 이런 좋은 미덕으로 장식하고 그런 것으로 네 백성을 합당하게 통치하라. 그리고 네 신하들을 다스리는 데 두 배로 신경을 써라.

독자는 아마 이 글에서 솔로몬이 잠언에서 자기 아들이 덕을 추구하고 바르게 행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과 비슷한 것을 발견할 것이다. 제임스 왕이 종종 성경의 위대한 인물 솔로몬과 비교된다는 것이 이상한 일일까? 랄스톤(David Ralston)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제임스 왕은 자기 시대 사람들에게 의해 '영국의 솔로몬'으로 간주되었다. 그는 정치학과 학문뿐 아니라 신학에 이르기까지 박식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성적으로 관심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의 손에 들려지기를 원했고 강단이나 지하 창고에 감금되어 그리스어 학자들만 그것을 읽기를 원치 않음을 분명히 밝혔다.

랄스톤의 언급이 지나친가? 그가 과장해서 이야기했는가? 아니다. 사실 그는 축소해서 말했다. 제임스 왕의 장례식 설교 때 윌리엄 감독은 적어도 열한 가지 세부 항목을 들어가면서 이 특출한 군주를 솔로몬과 비교했다.

이로써 우리는 이 위대한 왕이 자기 백성에게 사랑을 받았고 또 그들을 지극히 사랑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역사적인 인물은 우리

에게 어떤 다른 미덕들을 제시하는가?

크리스천 제임스 왕

물론 이 고귀한 군주는 또한 열성적인 크리스천이었다. 이 사실은 그의 글 안에 여러 번 드러난다. 제임스 왕은 「바실리콘 도란」에서 헨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침을 주며 충고한다.

하나님은 왕들에게 신들의 품격을 헛되이 주시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분의 왕좌 위에서 그분의 통치의 홀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왕들은 다시 자기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한다. 만일 그들이 행복한 통치를 원한다면 하늘에 계신 왕의 규례들을 준수해야 한다. 그분의 법으로부터 너희의 법들이 나오게 하라 … 그러면 너희가 통치자들의 미덕 가운데서 빛을 발할 것이요, 저 강력한 왕이신 하나님과 닮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떤 군주와도 다르게 제임스 왕은 왕이 아무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는 자기와 자기의 후계자와 그리고 모든 왕이 ‘하늘에 계신 왕’에게 복종해야 함을 확고히 의식했다. 실제로 제임스 왕은 왕에게 주를 섬겨야 할 의무가 두 번 주어졌다고 생각했다. 한 번은 보통 크리스천으로서 섬기는 것이고 또 한 번은 통치자로서 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 무엇보다도 네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서 이 중의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배워야 한다.

선한 왕은 다른 모든 위대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참된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그래서 선하고 지혜로운 왕은 그분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만 함을 잘 알았다.

이제 믿음은 바울이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믿음은 기도로 양육을 받아야 하는데 기도란 하나님과 친구같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마음이 평안할 때 기도할 기회로 삼아라. 특별히 침상에서.

제임스 왕은 자기 아들이 좋은 크리스천이 되도록 권면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거듭 반복한 주제였다. 실로 그는 좋은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좋은 왕이 되는 전제 조건이라고 보았다! 다시 한 번 그는 헨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그리고 너는 좋은 크리스천이니 네 백성 가운데 좋은 법을 세우며 좋은 왕이 되어라. 또 네 신하들과 함께 네 자신이 스스로 행하는 행위로서 덕을 세우라.

다시 한 번 우리는 신하가 ‘좋은 크리스천’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서까지 왕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을 왕이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제임스 왕이 느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장로교인으로 양육을 받았고 영국 국교회의 수장이었지만 제임스 왕은 자기의 후계자인 필립 왕자를 옥스퍼드에 있는 막달라 대학에 입학시켰는데 이곳은 확실히 청교도적 성향을 지닌 곳이었다. 실제로 그는 영국 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패에 대해 다섯 시간에 걸쳐 연설했는데 이를 두고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 중 한 사람인 엔드류스(Lancelot Andres)는 ‘왕이 청교도의 역할을 훌륭히 행했다.’고 말했다.

제임스 왕은 성경을 공부하는 훌륭한 학생이었으며 ‘깊이 성경을 읽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그는 성경 본문을 숨쉬 있게 인용했다.

그러나 에라스무스처럼, 제임스 왕은 성경이 소수 특권 계층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일반 사람들이 알기 쉬운 영어 성경으로 거룩한 말씀으로부터 유익을 얻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1603년에 영국의 왕위에 올랐으며 그 뒤 첫째 명령 중 하나로 성경을 새로 번역하라고 했다. 이 일은 선택된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자기의 모든 백성에게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성적으로 관심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의 손에 들려지기를 원했고 강단이나 지하 창고에 감금되어 그리스어 학자들만 그것을 읽기를 원치 않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더 많이 퍼지면 퍼질수록 자기 백성의 영적 상태가 좋아지리라고 확신했다.

제임스 왕은 성경이 가장 훌륭한 언어학자들에 의해 번역되어 감독과 다른 목사들에게 검토를 받고 프리비 회의에 최종적으로 전달되고 자기가 권위있게 비준하는 것을 제안했다. 제임스 왕이 성경을 펴내는 주요 동기가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이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었음은 너무나 확실하다.

제임스 왕은 일반 사람이 자기의 성경을 가지는 것을 바랄 뿐만 아니라 인근 각처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 나아와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가졌다. 그는 빌리어스(George Villiers)에게 다음과 같이 쓰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나의 사랑의 표로 이 새해 선물을 받으라, 이것은 우리 구원자께서 탄생하신 전 날에 쓰기 시작해서 새해의 첫 달 끝 무렵에 완성하였다. 거듭나고 그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때에 그분 안에서 일어나 영원토록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믿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란다.

그러면 제임스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어린양의 피로 씻은 옷을 입는 것이다. 여기에 종교적 의식이나 행위가 요구되는가? 아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다.’

비록 로마 카톨릭 교회의 반기독교적 속성들을 알았지만 제임스 왕은 여전히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오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는 주일에 스포츠를 금지하는 청교도들과 논쟁했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로마 카톨릭교도들의 회심에 방해가 된다고 그가 느꼈기 때문이다.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을 보려는 뜨거운 열망에서 제임스 왕은 미국 신대륙에 최초로 기독교 식민지를 세울 것

을 명령했다. 버지니아 주에 식민지를 세울 것을 인정한 그랜트 차터 법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선언했다.

거주지를 만들기 위해 … 그리고 미국 쪽에 버지니아라고 하는 우리 국민의 식민지를 세우기 위해서 … 그리고 아직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 잘 정착된 조용한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

이 사실은 다음 법규에 의해 더 강조되었다.

이 행동으로 우리가 바라거나 기대하는 근본 효과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독교 신앙으로 회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노력의 ‘근본 취지’가 프랑스나 스페인의 경우처럼 왕의 재산을 불리거나 신세계의 원주민을 노예로 삼는 데 있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이에 대해 제임스 왕을 존경해야 한다. 식민지 설립의 근본 취지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다주는 것 즉 혼을 자유롭게 하는 위대한 영적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이에 관련된 증거가 더 있다.

버지니아에 세워질 식민지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며 미개인들이 그분의 영광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이 영국 전역에 문서를 통해 알려졌다.

여기에서 우리는 제임스 왕이 자기의 이익보다 신세계 원주민들의 유익에 더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임스 왕은 비이기적이고 사랑이 많은 통치자로서 자기의 통치하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통치를 통해 부유해지기를 바랐다.

이 외에도 제임스의 선견지명이 참으로 빛을 발한 여러 영역이 있었다.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던 시대에 제임스 왕은 배심원 재판을 옹호했다. 신세계에 식민지를 세울 것을 허가하면서 그는 배심원 제도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져야 함을 밝혔다.

제임스 왕은 법정의 소송 절차를 상세하게 기록했다. 예를 들면 배심원이 없는 재판은 금지되었다. 제임스 왕은 이렇게 기록하였다. '열두 명의 정직하고 중립적인 인사들이 복음전도자들 앞에서 선서하고 ... 이렇게 선출된 열두 사람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증거대로 판단하고 ... 앞서 말한 열두 명의 판결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의 법정을 멀리서 내다본 제임스 왕으로 말미암아 배심원 제도를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임스 왕은 영국의 왕이었지만 이런 훌륭한 업적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다. 이것이 과대평가인가? 계속해서 읽고 확인하기 바란다!

비길 데 없는 제임스 왕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것 하나로 유명하다. 물론 이것은 보잘것없는 일이 아니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라이트 형제 역시 비행기를 발명한 업적으로 인해 명성을 얻었다. 비록 우리가 새처럼 날지는 못하지만 이들의 업적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다. 포드는 자동차를 발명하지 않았다. 그는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값싼 자동차를 발명했다. 그 일로 인해 그는 누구나 차를 가질 수 있게 했고 미국 사람이 자동차를 사랑하게 했으며 다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한 미국의 발전을 이루었다. 에디슨에게 명성을 준 것은 여러 발명품이었지만 우리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백열전구였다.

이들은 다 천재였다. 이들이 너무 위대하므로 우리는 이들의 개인적인 업적으로부터 인류 문명의 도표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업적은 영국의 왕좌에 앉았던 저 위대한 군주의 업적과 비교하면 별 것 아니다. 제임스 왕의 위대함은 문자 그대로 역사를 바꾸었다. 영국만 그의 위대함으로 인한 혜택을 받지 않았다. 미

국도 혜택을 받았으며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 등 영국 국기가 휘날린 모든 나라가 그러한 혜택을 누렸다. 더욱이 제임스 왕의 유산은 이런 경계를 넘어서 정말로 지구상의 모든 남녀 노소에게 영향을 주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위대한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그의 재위 시절에 그가 달성한 막대한 업적을 살펴보아야 한다.

1. 그는 영국과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민족들을 하나로 만들어 대영제국의 기초를 마련했다. 실로 그는 ‘대영제국’(Great Britain)이란 단어를 최초로 사용했다. 이 제국이야말로 영국 사람들이 ‘영국의 방법으로’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2. 그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번역을 명령했다. 이 책으로 인해 모든 영국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고 이 일은 오늘날에도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영향력은 다른 나라의 식민지 통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영국만의 문명을 만드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일반적으로 영국은 그 당시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식민지를 다루는 일에서 관용을 보였다. 오늘날 한때 영국의 식민지였던 독립 국가들은 대영제국과 일찍이 관계를 맺은 것으로 인해 많은 유익을 얻었다. 많은 경우 이런 나라들의 황금기는 영국 식민지 권력에 의해 착취를 당하던 때였다.

3. 그는 신대륙에 최초의 기독교 식민지를 건설했으며 이것은 곧 미합중국의 기초가 되었다. 프랑스와 스페인 이 두 나라는 영국 이전에 이 땅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로마 카톨릭주의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의 노력에 복을 주지 않고 성경을 높이는 영국으로 그 나라들을 대체해 버렸다.

제임스 왕은 새로운 식민지를 허락할 때 무엇보다 복음 전파를 제일의 목표로 삼았다. 이 같이 성경을 최우선으로 여긴 점은 식민지 역사를 통해 계속되었고 이후 새 나라 즉 미합중국을 세우는 데 영향을 발휘했다. 헨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말하였다.

이 위대한 나라가 종교인들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에 의해 세워졌으며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졌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것이 헨리만의 견해인가? 아니다. 미국이 ‘자유 번영’이나 ‘복합문화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전자는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에게 주어진 ‘잉여 수익’이며 후자는 미국의 성경적 기초를 무너뜨리고 미국을 뉴에이지 사상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을 싫어하는 뉴스 미디어’와 공립학교교육이 만들어 낸 거짓말이다. 그러나 미국이 세워질 때 모든 이들은 이 나라가 하나님을 위해 세워졌음을 잘 알았다. 하원의 사법 위원회는 1854년에 이것을 명확하게 발표했다.

미국의 헌법과 헌법 개정안을 채택할 당시의 일반적인 정서는 기독교를 복돋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 공화국을 세운 사람들의 신앙이었고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자손들 안에서도 유지되기를 기대했다.

이런 것이 미국의 역사를 다시 쓰려는 ‘우익 단체’의 고함소리인가? 결코 아니다. 심지어 자유주의의 언론매체인 「뉴스위크」도 진실을 인정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성경이 미국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뉴스위크」는 왕의 위대한 업적인 「흠정역 성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여러 세기 동안 성경은 미국의 문화, 정치, 사회 생활에 독보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현재 역사가들은 헌법이 아니라 성경이 미국의 설립 문서라는 점을 발견하고 있다.

성경 교육은 공립학교교육의 핵심이었고 거의 모든 가정이 성경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규칙적으로 경건하게 읽었다. 이 성경의 영향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미국을 거대한 회중 즉 교회의 혼을 지닌 민족으로 보았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인해 미국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 미국처럼 다른 사람/국가의 자유를 위해 자기의 젊은이들의 피를 그렇게 쉽게 흘릴 나라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미국처럼 자기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나라가 과연 어디 있단 말인가? 미국의 군인들은 전쟁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캔디 사탕을 주는 인자한 사람들로 비쳐진다. 세상은 그들을 지배자로 보지 않고 해방자로 보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킹제임스 성경」 때문이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가? 제임스 왕 때문이다.

4. 제임스 왕이 배심원 제도를 주장한 것은 이미 위에서 언급했다. 이런 개념은 이 개념은 식민지와 그 뒤를 이은 미국의 주 정부에 적용되었고 서구 문명의 진출에 의해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 전달되었다. 이러한 합리적인 재판과 모슬렘 국가나 공산 국가의 인민재판을 비교해 보기 바란다. 얼마나 대조적인가!

5. 제임스 왕은 여성을 높였고 결혼을 거룩히 여겼다.

그는 결혼 제도를 너무나 고귀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덴마크의 앤과 결혼하기 전에 기도와 묵상을 하면서 보름을 보냈다. 제임스 왕은 스스로의 말을 통해 이 경건한 제도에 대해 높은 경의를 표한다. 그는 자기의 후계자에게 결혼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좋은 벗에게서 네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지속될 터인데 네가 네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인 경건하고 덕스러운 아내와 결혼함으로써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 결혼은 땅에서 최고의 경사이며 하나님의 복 없이는 네가 결코 결혼의 행복을 기대할 수 없다.

젊은 부부들은 지금도 이 존귀한 분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한다! 여
기에서 다시 제임스 왕은 자기 아들에게 충고를 주면서 동시대 사
람들을 앞서 갔다.

결혼할 때 하나님께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이것은 그녀를 모든 면에서 네
아내로 네 자신의 반쪽으로 여긴다는 것이고 네 몸을 다른 이가 아닌 그녀와만
나눈다는 것을 뜻한다. 사실 네 몸은 더 이상 네 것이 아니라 고유하게 그녀의
것이다. 나는 음행이라는 더러운 악을 그만 두도록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믿는다. 결혼할 때 맹세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라. 그리고 아내에
대한 너의 행실에 대해서는 성경이 최고의 조언을 줄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결혼 약속이 하나님께 한 맹세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제임스 왕이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이다. 그
러므로 젊은 연인들은 결혼에 앞서 반드시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제임스 왕 자신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앤을 사랑했다. 글
로 그에게 흠집을 내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제
임스 왕은 유창하게 자기 자신을 변호한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법과 본성에 따라 당신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
하며 사실 이것은 내 아이들의 어머니요, 아내인 당신에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요 ... 당신의 존귀한 출생과 가문을 존경하기에 나는 당신과 결혼했소. 그
러나 이제는 당신이 나의 결혼한 아내요 나의 다른 재산과 명예와 존귀에 참여
한 사람이므로 나는 당신에게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있소.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 제임스 왕이 깊이 생각하는 바를 다 적을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나 그는 의심할 나위 없이 그녀가 죽을 때까
지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에게 진실했다. 그는 그녀의 죽음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하나님은 왕들의 친구요 가까운 친구인 그녀를 부르기 위해 자신의 별을 보냈
다. 그들은 인생의 길을 달리다가 결국 죽지만 죽음은 그들의 위엄을 높이 드
러낼 따름이다. 이렇게 나의 왕비는 여기에서부터 그녀의 보금자리로 옮겨졌

다. 그녀는 높은 곳에 등극하기 위해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분명히 변화되었다. 확실히 선한 통치자는 죽지 않으며 해처럼 다시 떠오르기 위해 진다.

플레이보이 철학이 공립학교교육의 철학이 되면서 젊은 사람들을 개처럼 살도록 가르쳐서 그들이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며 성범죄를 지으며 미국이라는 사회를 완전히 할리우드 방식으로 망가뜨리기 전까지는 미국에서도 이처럼 결혼을 거룩하게 여기는 미덕이 있어 왔다.

이런 위대한 제임스 왕의 훌륭한 유산들은 영국과 미국 시민들에 의해 멈추지 않는 바다 물결처럼 전 세계에서 실행되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여러 나라의 사회 구조 속에 합쳐져서 많은 좋은 것을 가져오고 그의 위대함을 알리게 되었다. 이것은 그가 우리에게 유언으로 증여한 유산이고 그는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었다!

「킹제임스 성경」의 출판이 계속되면서 그것은 온 세상에서 스스로의 길을 개척했다. 해외 선교가 영국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사용하여 자신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셨다. 하나님께 「킹제임스 성경」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킹제임스 성경」 이전에 「비숍 성경」, 「그레이트 성경」, 「제네바 성경」 등도 있었다. 하나님은 그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제임스 왕의 성경을 택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주변에는 항상 적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중 한 사람인 웰돈(Anthony Weldon)은 조정에서 추방당했고 이에 복수를 맹세했다. 제임스 왕이 죽은 지 25년 후인 1650년에 가서야 웰돈은 그 기회를 포착했다. 그는 제임스 왕을 동성연애자로 몰아 부치는 글을 썼는데 그때는 이미 제임스 왕이 죽은 뒤라 왕이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웰돈의 이 보고서를 무시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생존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제임스 왕을 비방함으로써 그의 이름이 담긴 성경 즉 「킹제임스 성경」을 더럽힐 수 있으며 그 결과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책인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좀 더 현대화 된’ 역본들로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최근 들어 꼬집어 낸 것인데 사실 그전까지 이것은 전혀 논쟁거리가 되지 못한 그런 종류의 시시한 문제였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 번 웰돈의 이 거짓 보고서는 - 그 보고서의 저자였던 웰돈과 같이 불순한 동기를 가진 자들을 제외하고는 -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에 의해 무시를 당하고 있다. 이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제임스 왕의 인품에 먹칠을 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 자들은 한결같이 성스럽지 못한 자리에 동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만일 제임스 왕이 동성연애 같은 부도덕한 일을 했다면 그는 하나님께 가증한 자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 결코 부도덕한 자가 만든 성경을 사용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킹제임스 성경」만을 사용했고 다른 것은 다 무시했다는 사실은 이 위대한 왕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이다. 심지어 하나님조차 그가 번역을 지시한 성경에게 ‘아멘’으로 화답하셨다.

아마도 킹 제임스에 대해서는 전도서 8장 4절에서 솔로몬 왕이 말한 것 이상의 찬사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왕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다음은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이 서문을 대신하여 왕에게 바친 헌사이다. 이 글을 통해 제임스 왕의 시대와 그가 이룬 업적이 어떠한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임스 왕께 바치는 헌사

본 성경의 번역자들은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아일랜드의 군주이시고 믿음의 옹호자이신 제임스 왕 곧 지극히 높으시고 강력하신 통치자 제임스 왕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존엄하신 주권자(主權者)시여, 전능하신 하나님 곧 모든 긍휼의 아버지께서 고귀하신 폐하를 보내시어 우리 영국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셨사오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은 참으로 크고 많다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서구 세계의 빛나는 별이시던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행복한 추억을 남기고 서거(逝去)하신 후 우리나라의 안녕(安寧)을 바라지 않는 많은 무리들이 이제야말로 두렵고 짙은 어둠의 구름이 이 땅을 뒤덮어 사람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도 모르고 이 불안한 국가를 누가 다스리게 될지도 모르고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던 바로 그 시점에 폐하께서 힘찬 태양처럼 나타나사 그러한 모든 억측(臆測)의 안개를 말끔히 일소(一掃)하시고 그로 인하여 불안해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는 안위(安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확고한 칭호(稱號)를 힘입어 폐하께서 세우신 정부와 폐하의 황태자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일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평화와 안녕과 더불어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어 참으로 큰 안위가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될 수 있다는 복(福)보다 우리 마음을 더 기쁘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모든 부(富)를 능가하는 가장 귀중한 보물이니 이는 이 말씀에서 나오는 열매가 이 일시적인 세상에서 피어나갈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을 높은 하늘에 있는 저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폐하의 고

명(高名)하신 전임자께서 물려주신 이 나라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유지하며 이를 원근 지방에 확산시키는 일에서 사람들이 확신과 결의를 가지고 전진하는 것이야말로 폐하게 충성을 다하는 경건한 모든 백성의 마음과 폐하를 굳게 결합시켜 주는 원동력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폐하의 존함(尊脚)이 모든 백성 가운데서 고귀하게 되며 그들이 위로 받는 가운데 폐하를 바라보고 폐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백성들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주는 창시자(創始者)가 되시며 거룩한 일꾼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될 것입니다.

실로 백성들의 이러한 만족은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늘어나 힘을 얻고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집을 향한 폐하의 열심(熱心)이 줄어들거나 차가워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뜨거워져서 기독교계의 저 먼 곳에서까지도 밝히 드러나고 있음을 그들이 직접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폐하께서는 진리를 옹호하는 글을 쓰사 (그 글로 저 죄의 사람에게 치명타를 가해 회복 불능으로 만드셨으며) 또 날마다 집에서 경건하고 식견(識見)이 높은 연설을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자주 들러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시며 그곳의 교사들을 위로해 주시고 참으로 부드럽고 사랑이 많으사 양육하시는 아버지로서 교회를 돌보고 계심을 백성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이처럼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건한 열정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 주는 증거가 수없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이 성경 곧 우리 번역자들이 겸손하게 폐하게 바치는 성경을 완성하고 출판하시기 위해 지금까지 보여 주신 뜨겁고도 지속적인 열망(熱望)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사려 깊은 판단 하에 우리를 앞서간 훌륭한 분들이 우리말과 다른 외국어로 이루어 놓은 여러 성경들을 비교해 가면서 거룩한 원어에서 더 정확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셨으며, 그 이후에는 그 작업을 맡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그 일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촉구하셨고 이처럼 중요한 일에 마땅히 요구되는 매우 품위 있는 방식으로 그 번역 작업이 진행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공훈과 우리의 지속된 노력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국의 교회가 이 작업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크게 소망하면서 우리의 왕이시고 주권자시며 이 작업을 창시하시고 주관하신 폐하께서 성경을 바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여러 사례를 살펴볼 때 늘 이런 종류의 일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모든 일에 만족해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 왔지만 우리는 폐하와 같이 식견이 높고 현명하신 군주께서 이 일을 인정하고 지원해주시기를 감히 바라는 바입니다. 폐하께서 우리의 수고를 승인하고 받아주시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영예와 위로가 될 것이며 이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모함과 혹독한 비판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국내외에서 교황의 추종자들에 의해 모함을 받을 것이며 그들은 우리에게 해악(害惡)을 끼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무지와 암흑 속에 가두어 두기 원하지만 우리가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더욱 더 널리 알리는 일을 수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자만에 차서 자기들의 길만을 고집하는 형제들에게 중상모략(中傷謀略)을 당할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직접 틀을 세우거나 만든 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내적으로는 진리와 선한 양심의 순결함을 힘입어 굳건히 서서 주님 앞에서처럼 단순하고도 순전한 길들로 걸으며 평안히 거할 것이며 또 외적으로는 폐하의 은

혜와 은총의 강력한 보호를 받아 굳건히 설 것입니다. 이같이 폐하께서 보호해주시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직한 수고와 노력에 힘을 북돋아 주어 거친 비판과 무자비한 비난을 이겨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께서 많은 행복한 날로 폐하께 복을 주시고 자신의 천상(天上)의 손을 펴사 놀랍고도 비상(非常)한 은혜로 폐하를 부요(富饒)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참된 행복과 지고한 복락(福樂)으로 인해 온 세상이 놀라는 기묘자(奇妙者)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이로써 이 일이 우리의 주(主)시요, 유일한 구원자(救援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교회의 유익이 되기를 간구하는 바입니다.